영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실제 관계에서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권신영* 서영숙**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mo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Practice Infant Mothers
depending on Household Income Level

Kwon, Shin Young Suh, Young Sook

본 연구는 영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실제 간의 관계에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매개효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매년 수집하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중 2010년 수집된 총 1,802명의 3차 연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때 아동의 연령은 만 25.75개월($SD=1.37$)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결혼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양육실제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결과는 첫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가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향상이 양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 결혼만족도, 양육실제, 자아존중감, 영아 부모, 매개효과

* 제 1저자: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youngss@sm.ac.kr)

I. 서론

현대사회의 여성은 다각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자녀 양육의 주된 역할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은 자녀 출생과 더불어 부부 둘만의 생활에서 부모의 생활로 전환되어 새로운 역할 수행에 대한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임현주, 이대균, 2013). 특히 영아기는 보살핌이 많이 요구되며 비언어적인 얼굴 표정, 몸짓, 울음 등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영아 부모는 자녀 양육에 더욱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때에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기에 자녀양육에 대해 긍정적이 되기 쉽다.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가 높으면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수행하여 자녀 발달에 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박성연, 임희수, 2000). 원만한 결혼생활을 통해 오는 만족감이 높으면 부모 자신의 삶 속에서뿐 아니라 자녀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같은 맥락에서 부부의 관계의 질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spill over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Leahy-Warren, McCarthy & Corcoran, 2012). 반면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모는 자신의 심리적 감정을 자녀에게 표출하게 되고 권위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혁, 김예성, 2008; 김현옥, 2006; 이선화, 2002).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결혼만족과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실제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양육실제와 결혼 만족감의 단편적인 관계만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며, 이에 따른 양육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심리적인 요인 중에서 자아존중감을 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행복감과 심리적 안정감이 상승하게 되고, 결혼만족도와 양육실제 간 매개 요인으로써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자아존중감이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Leahy-Warren et al, 2012).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어머니는 스스로 심리적으로 행복감과 만족감을 갖게 되고,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하게 된다. 이는 양육의 어려움을 중재할 수 있고, 자녀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지니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백은주, 강민정, 한선아, 2012; 정운주, 2008; Jones & Prinz, 2005). 또한 바람직한 자아존중감을 지닌 어머니는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생기게 되어 자녀 양육에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신성희, 원정숙, 2009). 이러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지닌 어머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더욱 열심히 하여 올바른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기에 영유아의 전반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보여진다(Clark & Ready, 2000; Dyrda, Roysamb, Nes, & Vitterso, 2011).

이전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과 양육실제를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소득집단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며 변인들 간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이전 연구결과에 근거하여(안현숙, 2008; 황혜원, 2004; Yeung, Linver, & Brook-Gunn, 2002)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가 자아존중

감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실제에 미치는 경로가 다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양육실제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보고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자아존중감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Yeung et al., 2002) 가구 소득 수준이 그 가족의 전반적인 질과 영유아의 성취에 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작용함을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부모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가치가 다르고, 양육방식이 상이한 현상을 보이는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신정이, 황혜원, 2008; 옥경희, 천희영, 2012; 이진화, 임원신, 김경은, 2010; Mistry, Biesanz, Chien, Howes, & Benner, 2008; Pinderhughes, Bates, Pettit, & Zelli, 2000) 양육행동과 가구 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일련의 연구에서 가구 소득에 따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듯이(강한나, 박혜원, 2013; 신정이 등, 2008) 가구 소득이 높은 어머니는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이고 정적인 자아 인식이 형성되어 자녀와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장선웅, 정혜정, 2011; 정은애, 2008). 반면에 소득이 낮은 가구의 어머니는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 양육행동의 어려움을 보였으며(민하영, 권기남, 2004)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높고, 결혼만족도는 낮기에 양육으로 발생하는 피곤함으로 인해 양육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강한나 등, 2013). 소득이 낮은 집단은 경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을 가져 어머니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결여로 인해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게 되므로(안현숙, 2008)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양육실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와 양육실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는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양육실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는 모형이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절 효과가 발생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양육실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와 양육실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셋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양육실제 간의 연구 모형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조절 효과를 갖는가?

이러한 연구목적에 의한 결과는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양육실제 세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해 줌으로써, 영아 발달에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를 갖게 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라는 심리적 측면을 매개 변인으로 추가해 간접적 영향을 밝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이해를 하게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영아 어머니가 올바른 양육방법을 가지기 위한 방안과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도와 양육실제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 가구 소득 수준을 상, 하 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에 따라 매개효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2010) 일반조사에 참여한 23-31개월 영아와 그 부모 총 1,802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1,802)

변인	내용	빈도(명)	비율(%)
영아	성별	남	917
		여	885
	월령	23-25개월	784
		26-27개월	848
		28-31개월	170
부모	연령	21-30세	467
		31-40세	1,283
		41세 이상	3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01
		전문대 졸업	491
		4년제 이상	758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하)	952
		300만원 이상(상)	850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변인들은 결혼만족도, 양육실제, 자아존중감이다.

1) 결혼만족도

부모 자신의 생활뿐 아니라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자녀의 성장 발달과 성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Chung, H.(2004)이 KMSS(Kan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매우 불만족 = 1점’부터 ‘매우 만족 = 5점’으로 평정하는 척도임)로 구성되어 있으며 4문항을 활용하였다. 점수 범위는 4-20점이며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문항은 ‘귀하는 배우자로서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결혼만족도 신뢰도는 $\alpha = .92$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양육실제

어머니의 양육실제는 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Haynes, Painter, Galperin과 Pecheux(1996)가 개발한 양육 스타일(PSQ :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의 하위 척도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PSQ 총 17문항 중 ‘사회적 양육유형’을 측정하는 도구를 선정하여, 한국아동패널 3차 년도에 총 9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부모가 긍정적 양육 유형을 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양육실제에 대한 신뢰도는 $\alpha = .87$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86) 척도를 활용하여 총 10문항에 대해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문항은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느낀다’, ‘내가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신뢰도계수는 $\alpha = .89$ 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형은 변수들 간의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주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자료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여 각 측정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각 측정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 결혼만족도와 양육실제 및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와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AMOS 18.0을 활용하였고, 측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측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 추정 방정식은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의 결측치를 해결하는데 장점을 지닌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Kline, 2005). 적합도 지수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으며, CFI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TLI와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분석에 적합하기에 활용하였다(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홍세희, 2000). 또한 TEL와 CFL의 경우 좋은 적합도의 값은 .95값 이상일 때와 RMSEA는 .06값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므로(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를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양육실제, 자아존중감 두 요인은 문항결합(item parceling)을 사용하여 측정 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가구 소득에 따른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 수준을 중앙값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소득 수준 상, 하 집단 간의 경로계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등가 제약을 실시하여 교차 타당성을 검증하였다(Byrne, 2001).

III. 결과 및 해석

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양육실제 간의 관계

1) 측정변수들의 정규분포 검토 및 상관관계 분석

각 측정 변인의 왜도는 -0.77에서 0.14사이였고, 첨도는 0.74에서 1.04사이로 모든 측정 변인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측정변인들의 상관분석과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을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주요 변수들 간의 다중 공산성(VIF)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 팽창계수를 본 결과 모든 변수의 값이 VIF 판단 일반적인 기준 10.0을 넘지 않아, 변수 간의 다중 공산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양육실제 간에 유의미한($p < .05$) 관계를 보이며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N=1,802$)

	1	2	3	4	5	6	7	8	9	10
결혼만족도1(1)	1									
결혼만족도2(2)	.83**	1								
결혼만족도3(3)	.84**	.83**	1							
결혼만족도4(4)	.66**	.62**	.65**	1						
자아존중감1(5)	.23**	.28**	.26**	.20**	1					
자아존중감2(6)	.21**	.26**	.25**	.18**	.67**	1				
자아존중감3(7)	.25**	.31**	.30**	.22**	.77**	.75**	1			
양육실제1(8)	.18**	.19**	.19**	.16**	.33**	.39**	.38**	1		
양육실제2(9)	.19**	.19**	.20**	.17**	.29**	.35**	.34**	.70**	1	
양육실제3(10)	.18**	.19**	.21**	.19**	.35**	.42**	.40**	.69**	.68**	1
평균	3.90	3.83	3.83	3.83	3.64	3.36	3.39	3.91	3.77	3.69
표준편차	0.85	0.83	0.85	0.92	0.43	0.46	0.47	0.57	0.57	0.58
왜도	-0.77	-0.66	-0.63	-0.61	-0.01	0.14	-0.17	-0.40	-0.19	-0.10
첨도	0.73	0.74	0.49	0.07	0.26	0.23	0.30	1.04	0.39	0.45

* $p < .05$, ** $p < .01$

1: 결혼만족도(1), 2: 결혼만족도(2), 3: 결혼만족도(3), 4: 결혼만족도(4), 5: 자아존중감(1), 6: 자아존중감(2), 7: 자아존중감(3), 8: 양육실제(1), 9: 양육실제(2), 10: 양육실제(3)

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실제 간의 매개 효과

1) 구조방정식 측정 모형 분석

연구 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인 어머니의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양육실제를 포함한 측정 모형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측정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99.000***	32	.990	.994	.034(.027~.042)

*** $p < .01$

〈표 3〉과 같이 측정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적합도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CFI, TLI, RMSEA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양육실제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는 CFI=.990, TLI=.994, RMSEA=.034로 좋은 양호도를 보여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2) 구조 모형 검증

결혼만족도와 양육실제 간의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가 〈그림 1〉과 같이 부분 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안 모형을 〈그림 2〉처럼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결혼만족도와 양육실제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의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TLI, CFI, RMSEA를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림 1〉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

〈그림 2〉 완전매개모형(대안모형)

〈표 4〉 양육실제에 대한 자아존중감 구조모형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99.000***	32	.990	.994	.034(.027~.042)

*** $p < .01$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매개모형을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해서 비교하였다.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은 내재화된 모형이므로 χ^2 차이 검증(χ^2 difference test)을 실시하였다. <표 5>와 같이,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차이는 $\Delta\chi^2(1) = 15.888(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모형 적합도가 더 우수한 부분매개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결혼만족도는 양육실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혼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양육실제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양육실제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검증

모델	χ^2	df
완전매개모형	114.888	33
부분매개모형	99.000	32

최종 모델로 결정된 모수추정치는 <표 6>에 제시한 것과 같다. 경로계수를 보면 결혼만족도는 자아존중감($\beta = .335$)과 양육실제($\beta = .1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도 양육실제($\beta = .464$)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양육실제에 대한 자아존중감 매개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t	표준화 계수(β)
자아존중감←결혼만족도	.185	.015	12.701***	.335
양육실제←자아존중감	.629	.037	16.937***	.464
양육실제←결혼만족도	.075	.019	3.972***	.101

*** $p < .01$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결혼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양육실제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 효과를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한 후 <표 7>과 같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혼만족도→자아존중감→양육실제에 대한 검증치 Z값이 임계치인 1.9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aron & Kenny, 1986).

<표 7>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	Z
결혼만족도→자아존중감→양육실제	.116	9.983***

*** $p < .001$

3.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양육실제 간의 조절효과 검증

가구 소득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에서 설정된 부분매개모형을 기반으로 다중 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소득 수준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소득 수준 하 집단 ($n=952$)과 소득 수준 상 집단($n=850$)으로 나누어 각 경로별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교차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등가 제약을 실시하였다(Byrne, 2001).

그 결과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나타남에 따라 모든 경로계수에 대한 등가 제약을 가하였다. 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다만, <표 9>에서 나타나듯이 결혼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동일성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Delta\chi^2(1, n=1,802)=4.825, p<.05$). <표 10>에서와 같이, 결혼만족도에서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된 계수는 소득 수준 하 집단 $\beta=.385$, 소득 수준 상 집단 $\beta=.260$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득 수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집단 간 등가 제약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136.868***	71	.991	.994	.023(.017~.028)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	142.416***	74	.991	.994	.023(.017~.028)

 $p<.01$

<표 9> 기저모형과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간의 소득 상, 하 집단 차이 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χ^2 변화량	df 변화량	TLI 변화량
자아존중감←결혼만족도	4.825*	1	.000
양육실제←자아존중감	.565	1	.000
양육실제←결혼만족도	.478	1	.000

*
 $p<.05$

<표 10> 가구 소득 수준 조절 효과에 대한 모형의 모수 추정치

모 수	소득수준 하	소득수준 상
결혼만족도→자아존중감	.385	.26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양육실제 간의 관계를 살

펴보고,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양육실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양육실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양육실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느끼는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배우자를 통해서 경험되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실재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실재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와 일치한다(Dyrdal et al., 2011; Kaczynski, Lindahl, & Malik, 2006). 뿐만 아니라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이경희, 김영희, 신성일, 2012)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견해로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실제가 애정적, 수용적이 된다는 결과와(백경숙, 2011) 부부가 갈등상태일 때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정적인 양육실제를 보인다는(김수진, 도현심, 2001)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바람직한 양육실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경선(2011) 연구의 결과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실제가 일어난다는 것과 일치한다. 이처럼 어머니가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가질수록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요인이고, 자신에 대해 지각하는 이해도(Bosson, Brown, Zeigler-Hill, & Swann, 2003)이며, 타인과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가치(Curry & Johnson, 1990)임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자녀 양육실제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실재 정도에 미치는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이전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이 지니는 경제적 빈곤이 부부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이러한 관계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Conger, Elder, Lorenzo, Simons, & Whitebook, 1992).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부부간의 대화도 줄어들고, 소득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비교적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더 높게 나타나 결혼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한다(옥경희 등, 2012). 즉,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경제적 압박감과 부담을 느끼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자녀 양육에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석되어진다. 또한 가구 소득 수준은 어머니의 생활태도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안현숙, 2008),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의 부모들은 따뜻함과 애정을 많이 표현하는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결과(Kelly, Power, & Wimbush, 1992)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지 않았다. 즉,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실제에서는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양육실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득이 낮은 가정의 어머니는 일반 가정의 어머니보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임현주 등, 2013). 더불어 가정의 소득수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느끼며,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안현숙, 2008). 이처럼, 선행연구와 불일치한 연구결과는 절대적 기준의 수입에 상관없이 소득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한 점이 어머니의 삶 전반에 만족감을 가져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 소득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관계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이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면 자아존중감도 상승하게 되는데, 특히 소득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집단의 어머니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결혼만족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풍족한 경제력을 지녀 어머니의 긍정적인 심리인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처럼 소득 상위 집단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닐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보여진다(이복희, 박아청, 이경혜, 2010). 반면에 소득이 하위 집단은 바람직한 자아존중감을 지닐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집단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서는 소득별 전략에 차이를 두어야 함이 고려되며, 특히 소득이 낮은 부모에게는 결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높일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상승한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자녀를 기르는 양육실제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올바른 양육행동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의 결혼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양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양육실제에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구조에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봄으로써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실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득을 고려해야함에 의의를 갖는다. 더불어 영아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실제를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 특히 부모의 관계, 심지어 부모의 심리적인 면까지 고려하여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족의 관계, 분위기, 심리적인 특성이 협력적으로 고려되는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의 방향을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 자료를 활용했지만, 한국아동패널이 다년간의 자료가 축적되었으므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실제, 자아존중감 간의 시간적 특성을 반영한 종단 자료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광범위한 연구 대상을 선택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으나, 연구 대상과 연구 도구를 선택하는데 한계점이 있었기에 몇 가지 특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셋째,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조절 효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결과가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며 가구 소득 외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다양하게 포함해서 탐색

해볼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를 포함하고,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폭넓은 변인을 포함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영유아와 함께 살아가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참고 문헌

- 강한나, 박혜원 (2013).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6), 613-622.
- 김광혁, 김예성 (2008). 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 부모의 우울 및 부부관계,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자유주제 발표 1부: 그룹발표2. 226-232.
- 김수진, 도현심 (2001). 부-모간 양육행동의 관련 변인 :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01-114.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옥 (2006). 아동학대 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생태체계적 변인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민하영, 권기남 (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박성연, 임희수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103-115.
- 백경숙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와 결혼만족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6(2), 181-198.
- 백은주, 강민정, 한선아 (2012). 어머니의 특성과 자녀의 기질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0(1), 65-78.
- 신성희, 원정숙 (2009). 학령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4), 492-500.
- 신정미, 황혜원 (2008). 가구소득,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0(3), 101-122.
- 안현숙 (2008). 가정의 소득수준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영아의 어휘력: 19-30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옥경희, 천희영 (2012).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33(1), 205-221.
-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37-851.
- 이경선 (201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관련 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27-145.
- 이경희, 김영희, 신성일 (2012).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지**, 17(1), 125-152.

- 이복희, 박아청, 이경혜 (2010). 중년기 취업여성의 가계 경제수준, 자아존중감, 역할적응 및 자아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03-120.
- 이선화 (2002).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유아기 자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화, 임원신, 김정은 (2010). 저소득층 부모가 지각한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환경의 질이 가정 중심 유아교육의 부모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5), 761-774.
- 임현주, 이대균 (2013). 가구의 월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변인과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8(5), 1-22.
- 임현주, 최향준, 이대균 (2012). 출산관련심리, 부부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교육학회지**, 16(3), 93-116.
- 장선웅, 정혜정 (2011).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93-111.
- 정운주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6(3), 73-85.
- 정은애 (2008). 자녀수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의 관계.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혜원 (2004).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지**, 18, 157-18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osson, J. K., Brown, R. P., Zeigler-Hill, V., & Swann, W. B. (2003). Self-enhancement tendencies among people with high explicit self-esteem: The moderating role of implicit self-esteem. *Self and Identity*, 2(3), 169-187.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with AMOS :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3), 1015-1022.
- Clark, L. Kochanska, G., & Ready, R. (2000). Mothers' person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and its interaction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2), 274-285.
- Conger, R. D., Elder, G. H., Lorenzo, F. O., Simons, R. I., & Whiteboo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 Development*, 63(3), 526-541.
- Curry, N. E., & Johnso, C. N. (1990). *Beyond self-esteem: Developing a genuine sense of human value*.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Dyrdal, G., Roysamb, E., Nes, R., & Vitterso, J. (2011). Can a happy relationship predict a happy life? A population-based study of maternal well-being during the life transition of pregnancy, infancy, and toddlerhood.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6), 947-962.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3), 341-363.
- Kaczynski, K., Lindahl, K., Malik, N., & Laurenceau, J. (2006). "Marital conflict,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A test of mediation and moderation" .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2), 199-208.
- Kelly, M. L., Power, T. G., & Wimbush, D. D. (1992). Determinants of disciplinary practices in low-income black mothers. *Child Development*, 63(3), 573-582.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eahy-Warren, P., McCarthy, G., & Corcoran, P. (2012). First time mothers: Social support, maternal parental self efficacy and postnatal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34), 388-397.
- Mistry, R., Biesanz, J., Chien, N., Howes, C., & Benner, A. (2008). Socioeconomic status, parental investments, and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outcomes of low-income children from immigrant and native househol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2), 193-212.
- Pinderhughes, E. E., Dodge, K. E., Bates, J. E., Pettit, G. S., & Zelli, A. (2000). Discipline responses influences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ethnicity, beliefs about parenting, stress, and cognitive-emotional process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3), 380-400.
-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Yeung, W. J., Linver, M. R., & Brook-Gunn, J. (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 *Child Development*, 73(6), 1861-1879.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if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practice by using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of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empirically analyzes if household income causes the difference of mediating effect. For this research, the 3rd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2010), including 1,802 children whose average age is 25.75 months ($SD=1.37$), is employed. Based on the preceding studies which demonstrated th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directly and indirectly, a research model is designed by predicting that marital satisfaction might have a positive effect on parenting practice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steem. Structuring equation was used to analyze the model as the appropriate research method. The result of the data analysis utiliz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s as follows: Firstly, the higher the marital satisfaction of a mother is, the more it influences her positive child-rearing attitude, not only directly, but also indirectly through her self-worth. Secondly, the modifying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the income of a household was found to be meaningful only in the influences of the marital satisfaction to the self-worth. This study result suggests that the enhancement of the self-worth of a mother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rearing, regardless of the level of the income of a household.

▶*Key Words* : Marital Satisfaction, Parenting Practice, self-esteem, infant parents, Mediating Effect

논 문 투 고	2014. 06. 21.
수정원고접수	2014. 10. 02.
최종게재결정	2014. 10. 05.